『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3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요한계시록 6장 1-2절 설교제목 : "내가 보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연관이 되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종말에 어떤 재난이 임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처럼 범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은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팬데믹과 같은 재난들은 더욱 빈도와 강도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과 같은 재난을 넘어서, 성경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진정한 종말적 재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1절을 봅시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오늘 본문은 일곱 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이 인을 떼는 분이 어린양이신 주님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재난 역시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말의 재난이 대부분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다는 것이, 주님이 재앙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종말의 재난마저도 주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참고 롬8:35) 그렇다면 종말의 재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재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케 하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의 재난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정결의 길로 나아가게 통로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과 정결의 과정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종말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본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내가 본다'**로 번역된 **'에이돈'**은 '보다'란 의미뿐만 아니라 **'인식하다' '알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내가 보매'가 주는 의미는 우리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 앞에서 정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재난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겸비해져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았던가! 삶의 예배는 강조하면서, 주일 공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저 동토의 땅 이북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한 우상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재난은 심판이 아닌 정결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2절을 보면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2절의 핵심은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대개의 경우 19장의 11-16절의 내용으로 인해 착시현상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11에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주하려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을 살펴보면, 두 존재가 비슷해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우선 두 존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19:12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

이 있습니다. 또한 계6:2의 흰 말을 탄 존재 역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두 존재 모두 관과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에 쓰인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면류관은 전쟁이나 운동경기에서 수여하는 관입니다. 그런데 계19:12에서 예수님이 쓰신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입니다. 이 관은 왕권을 인정받은 자가 쓰는 왕관입니다. 대관식에서 왕의 머리에 얹어지는 왕관입니다. 따라서, 6장의 '관'과 19장의 '면류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19:15과 요한계시록 6:2을 비교해 봅시다. 계19:15의 예수님께서 가진 무기가 있는데, 검입니다. 검은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계6:2에서 흰 말을 탄자가 가진 무기는 활입니다. 성경에서 활 혹은 살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기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의 흰 말을 탄 존재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19장의 '흰 말을 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6장의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종말의 재난 가운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종말의 재난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진리에 대한 혼동과 혼란입니다. 진리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난은 진리의 혼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세가 오면 가장 큰 재난은 정치나 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진리의 붕괴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진리를 혼돈케 하여 세상을 더욱 더 재난 속에 빠뜨립니다. **실은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재난은 비진리의 팬데믹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혼탁한 재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 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 진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롯이 말씀 안에서 살고, 진리를 수호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종말의 재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재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카톡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1) 일곱인 재앙의 첫 번째 인을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재앙이 갖는 성경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적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종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없습니까?'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